

DAS DIGITALE BEETHOVEN-HAUS

관객이 연출하는 디지털 입체영상음악무대

“피델리오 21세기”

음악: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1814) 제 2 막 중의 한 장면. 레오나르트 베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비엔나 필하모닉의 반주에 (1978) 르네 콜로 (플로레스탄 역), 군돌라 야노비츠 (레오노레 역), 한스 소턴 (돈 피자로 역), 만프레드 용비르트 (로코 역)가 출연

제작: 요한나 돔보이스 (구상, 감독/각색, 예술 담당), 울리 레히너 (영상 효과 담당), 플로리안 돔보이스 (아이디어, 구상, 프로젝트 담당), 2004년 베토벤하우스를 위해 Vertigo Systems GmbH 와 rmh-new media gmbh. 및 Sankt Augustin의 Fraunhofer-Institut für Medienkommunikation 공동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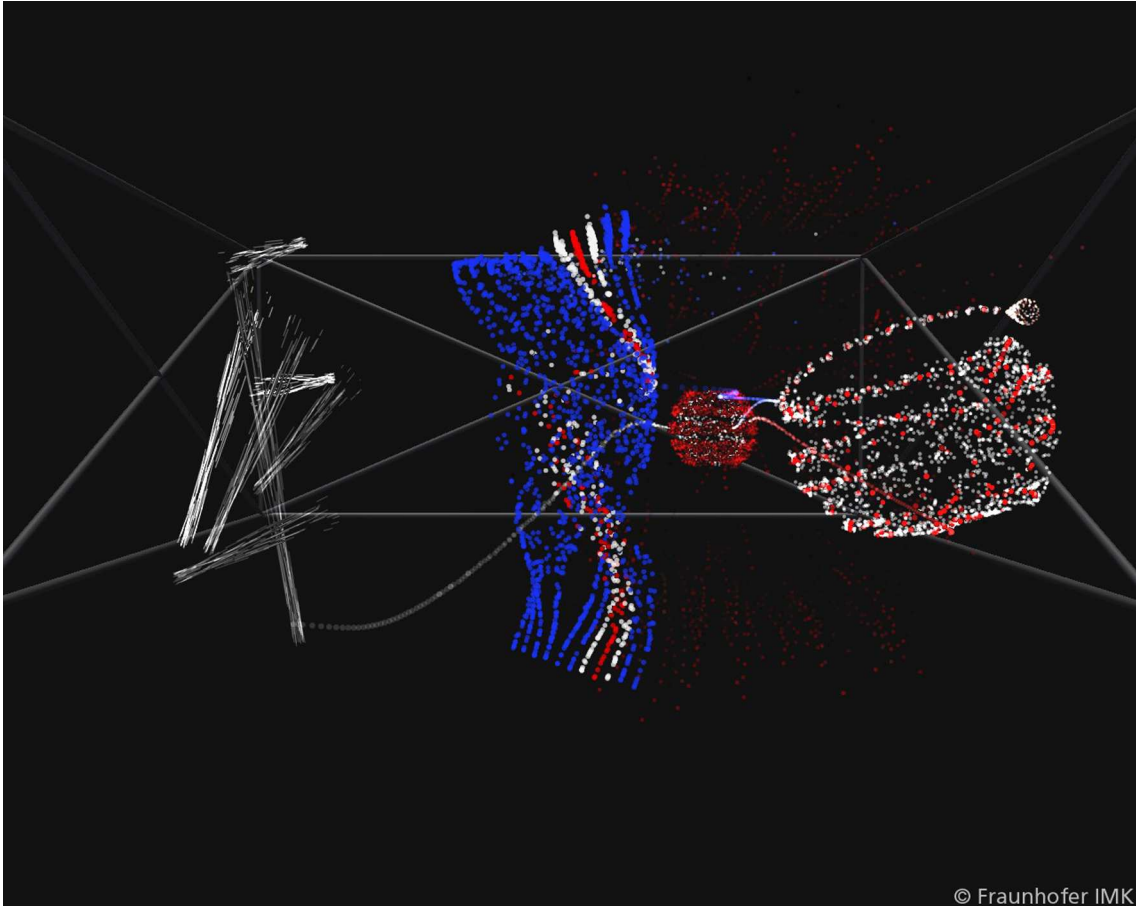
상연시간: 20분

“피델리오 21세기”는 고전 오페라를 3D 입체 영상으로 표현한 최초의 작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세한 입자들로 이뤄진 추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음악과 연출의 흐름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면서 원래의 고전 오페라 등장 인물들을 재현한다.

또한 관객들은 기계를 조종하며 자신이 원하는 무대를 직접 연출 할 수 있다

상영 줄거리: 무대에서 상연하는 장면은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피자로는 플로레스탄을 감옥에 가두고 (시작부분), 감옥에 갇힌 플로레스탄에게 천사의 모습을 한 아내 레오노레의 환상이 나타난다 (아리아 ”In des Lebens Frühlingstagen“(삶의 봄날들)). 간수인 로코를 (휘파람소리) 이용해 감옥으로 잠입한 피자로는 플로레스탄을 단검으로 찔러 죽이려 한다. 이때 피델리오 (남장을 한 레오노레) 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몸을 던져 피자로의 단검을 막아낸다. 그리고 남편 플로레스탄을 구한다 (사중주 “Er sterbe” (그는 죽으리라)). 플로레스탄은 피자로를 물리치고 자신을 구한 아내 레오노레와 함께 마침내 되찾은 그들의 자유와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한다 (듀엣 “O namenlose Freude” (오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여)).

등장인물: 추상적 모습을 한 등장 인물들은 각각의 특이한 형태와 색을 통해 구별 할 수 있으며 음악의 강도에 따라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다.



© Fraunhofer IMK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피자로 (흰 막대기모양), 레오노레 (파란색의 평면 또는 물결모양), 로코 (촉수를 가진 붉고 흰색의 두개의 타원이 겹쳐져 있는 모양), 플로레스탄 (회고 붉은색의 용수철모양), 감옥은 기하학적으로 나열된 선 모양.

조종기기: 관객들은 무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네 대의 조종기를 움직여 오페라가 상연되는 동안 청각적 시각적 효과를 독자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관객의 조종에 따라 등장 인물들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노래의 방향과 강도도 함께 달라진다. 네 대의 조종기기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을 각각 나타내며 기기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

뿔모양의 조종기기 - 플로레스탄 (화면속에서 용수철 모양으로 등장)

구 모양의 조종기기 - 로코 (화면속에서 둥근 공모양으로 등장)

화살표 모양의 조종기기 - 레오노레/ 피델리오 (화면속에서 평면모양으로 등장)

쥘리시틱 조종기기 - 피자로 (화면에서 여러 개의 막대기 모양으로 등장)

디지털 입체 영상음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beethoven-haus-bonn.d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토벤 생가 안쪽에 위치한 베토벤 박물관과 디지털 전시 스튜디오도 한 번 방문해보세요.